맹독사과III-하나님 시험

(눅4:9-13)

9.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10.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11.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치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12.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13.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맹독사과 III-하나님 시험>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세 번째의 맹독사과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매순간마다 십자가를 기억하고 내가 죽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을 때와 똑같은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늘 문이 열립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고백은 이 세상을 등지기로 결정하는 것이고, 하나님만을 향하는 것으로 결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한분만으로 내 기쁨과 만족의 이유를 삼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하나님과 나와 교통이 이루어지는데, 그 교통 가운데 들려지는 첫 번째 음성이 하나님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 때문에 몹시 기쁘다' 이게 바로 에덴이라는 겁니다.
나 때문에 생기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 때문에 생기는 나의 기쁨, 이 기쁨의 충만한 삶이 에덴이라서, 십자가를 우리가 받아들이자마자 우리 삶은 에덴으로 변합니다.

이렇게 에덴으로 변할 때, 그 옛날의 에덴과 마찬가지로 선악과를 대신하는 먹어서는 안 될 과일나무가 서게 되는데, 그 첫 번째 독 사과, 백설 공주가 먹으면 안 되었던 그 첫 번째 독

사과가 우리 육체, 육체는 요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이 육체의 요구와 필요에 묶여버리거나 따라가면 안 됩니다.
내 마음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육체의 필요를 알아서 채워 가실 것입니다.
또 내 마음이 육체에 대해 갖는 관계가 첫 번째 독 사과가 열리는 나무라고 하면, 내 마음이 몸으로 사는 인간 세상에 대해서 갖는 관계가 두 번째 과일이 맺혀지는 나무입니다.
인간 세상에서 사람들의 눈에 잘 보이고 싶습니다.
내 마음이 세상에서 사람들 앞의 나의 모습을 향하는 이것이 두 번째 독 사과가 돼서 에덴이 사라져버리고 만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하나님이 나 때문에 기쁜 그러한 기쁨의 동산 에덴이 사라져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어제 말씀을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의문점이 생긴 분이 계실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배가 고프다고 할 때 도대체 배가 고플 때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는 이런 생각, 그러면 이런 것도 하지 말아야 되느냐?
실천적으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런 실천적인 면을 생각할 때 언제나 내 삶이 십자가를 받아들임으로써 에덴이 되었다는 걸 기억하세요!
에덴의 특징은 기쁨입니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마음이 완전히 기쁘게 된 상태에서 그때 점심을 먹게 되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기쁘지 않은 채로 때가 돼서 먹게 되고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는 것은 다 육체의 요구를 따라 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얼마든지 우리 생활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노처녀가 정말 마음에 드는 애인이 생겼을 때, 그 애인 때문에 생긴 기쁨이 충만할 때 무엇을 먹어도 상관없고, 안 먹어도 배가 부르고, 그저 누가 무엇을 먹자고 하든 OK, 다 OK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김 과장님이 육개장 먹으러 가자고 해서 아무거나 먹을 때 그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미스 김이 낙지볶음 먹자고 하면 신랑감을 만나서 이렇게 기쁜데, 낙지볶음이면 어떻고 떡볶이면 어떻고 그래서 미스 김 따라가서 떡볶이 먹으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이 된다는 얘깁니다.
사업가가 돈 많이 벌어서 기쁠 때, 만나는 사람마다 '뭐 먹고 싶어요?' 내가 먹고 싶은 걸 원하지 않아요.

그때 상대방이 '스테이크 한번 사주시겠습니까?' 그래서 먹게 되면 나한테도 하나님이 스테이크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보라 이거에요.
그러면 실천적인 면이 다 해결되는데, 지금 돈이 없다고 불만인 상태에서 말씀을 들으면 도대체 태 목사는 뭐 자기는 한다고 만날 저렇게 실천적으로 불가능한 비현실적인 얘기만 하고 있느냐,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겁니다.
우선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보라 이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이야기 하는 모든 실천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독 사과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
세 번째 독 사과는 '하나님 시험'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시험'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나한테 와 닿지 않아요.
마귀가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데려갑니다.
이게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광야로부터 순식간에 이동하는 것이 가능할 거예요.
그 성전 꼭대기를 학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남쪽 망대일 것이고, 그 남쪽 망대는 바로 성전 벽과 접하고 있는 기드온 골짜기 깊이까지 다 계산하면 망대에서 골짜기 아래까지 137m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높은 곳이죠.
'그곳에서 뛰어내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이 죽지 않게 발이 땅에 닿기 전에 살짝 들어서 받쳐주실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주님께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응수를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시험', 현실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는 동안에 누가 이런 식으로 '63빌딩 꼭대기에서 내가 떨어질 테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면 날 받아주세요!'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시험은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염려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런 시험을 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이 비슷한 얘기는 들어보기는 했어요.
장마철에 계곡물이 흘러내리는데, 기도원에서 은혜 충만하게 받은 여자 전도사님이 '내가 이렇게 은혜 받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데 이까짓 계곡물이 뭐가 문제냐?' 하고 지나가다 빠져죽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진짜인지 아닌지 하여간…
근데 이런 식으로 시험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일상적인 삶을 수행해 나갈 때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문제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에요.
첫 번째 육체의 요구에 마음이 끌려 다니는 것이나, 사회적인 욕망에 끌려 다니는 것이나, 그 빈도수가 결코 적지 않을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에덴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 시험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면 출애굽기 17장에서 나옵니다.
하나님 시험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발생한 그 원조 격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출애굽을 했습니다, 온갖 기적, 어느 민족에게도 베푸시지 않았던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십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출애굽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신 광야에서부터 르비딤이라는 곳까지 행진을 하는데 이 긴긴 행진의 시간 동안에 물이 없었습니다.
그 뜨거운 사막에서 어린이들과 노약자들이 함께 섞여 있는 200에서 250만의 오합지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할 때 물이 없어서 르비딤에 장막을 치고 나서 전부다 헐떡거리면서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신경질은 내고 화를 내며 다투게 됩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요즘같이 더울 때는 저는 하루에도 냉장고 문을 몇 번 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아니 말이 안 되지요.
이 불만에 대해서 모세가 좀 이렇게 말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 정말 나 자신도 목말라 죽겠다, 나는 급하지 않겠느냐? 대체 하나님이 왜 그러신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했어야 되는데, 모세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무슨 여호와를 시험했다는 겁니까?
아니, 그 광야에서 물 한 방울 안 주면서 그 긴 여행을 행진을 하라고 해놓고는 물 안 준다고 불평한다고 해서 여호와를 시험한다는 것이에요.
도대체 여호와를 시험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 시험은 이렇습니다.
자, 세 가지 맹독성의 독 사과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내 마음이 육체에 대해 갖는 관계였습니다.

두 번째 독 사과는 내 마음이 이 사회에 대해서 갖는 관계였습니다.
세 번째는 마음이 하나님에 대해서 갖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이 세 가지의 관계 말고 다른 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다 이거예요.
내 몸에 대해서 내 마음이 갖는 관계, 인간 사회에 대해서 갖는 관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갖는 관계.

하나님에 대해서 갖는 관계는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앞서서 당신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과 관계가 시작될 때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종교와는 다른 것이에요, 일반종교에서는 의존의 감정으로 내 필요에 의해서 신을 찾고 붙듭니다마는 예수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아버지와의 관계는 아버지가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관계가 시작이 됩니다.
이때 이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답을 갖고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찾은 적도 없고, 내가 하나님을 부른 적도 없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도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내가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는데, 쫓아다니면서 내 귀에다 대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왜냐하면 사랑하려고 선택했다'고 그렇게 난리치셨으니까, 그래요 좋습니다, 날 그렇게까지 사랑하신다니까 내가 사랑하도록 허락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대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한번 볼게요.
지금 내 상황이 이렇거든요?
이 상황에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제 어떡하실래요?>
이게 바로 하나님 시험이라는 겁니다.

어떡하실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러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답을 내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그러면 어디 한번 이 상황에서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나는 답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답에 맞게 결과가 나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하나님의 고백이 맞는 것이고, 내가 갖고 있는 답대로 하나님이 행동하시지 않고 내 현실에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은 거짓말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시험이라는 거예요.

자, 신 광야에서 르비딤까지 행진을 합니다.
나는 답을 알고 있어요.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난리법석을 치면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을 믿고 출애굽 했습니다.
그래서 신 광야에서 르비딤까지 가는데, 이 행진의 상황 속에서 당신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선민을 사랑하신다고 한다면 내가 알고 있는 답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때를 따라 물을 공급해주셔야 그것이 출애굽을 통해서 사랑한다, 사랑한다고 난리법석을 떨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되는 겁니다.
내가 목마를 때마다 물이 뚝뚝 떨어져서 사막을 지나갈 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 이것이 내가 갖고 있는 답이고, 이 답대로 하나님이 행동해주셔야 하나님이 출애굽을 통해서 사랑한다, 사랑한다고 난리법석을 떨었던 그 말씀이 맞는 것이라고 인정해줄 수 있다는 얘깁니다.
이게 하나님 시험이라는 것이에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내 방식을 주입하고, 내 방식을 고집하고, 내 방식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정답대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말에 맞추어서 현실에서 답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존재조차도 부인되어 버리고 맙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7장 3절에서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출애굽 사건은 노예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도저히 역사상 찾아볼 수 없는 기적을 통해서 해방시킨 사건이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신 광야에서 르비딤까지 광야를 행진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던 답대로 하나님이 행동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제 이 출애굽 사건은 기적을 통한 선민의 해방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이 아니라, 남녀노소 그리고 가축까지 사막으로 끌어내서

몰살시키려는 하나님의 대량학살의 계획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출애굽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이 내가 갖고 있는 답대로 하나님이 행동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출애굽이 이제는 사랑이 아니라 대량학살, 집단살인을 위한 하나님과 모세의 주도면밀한 계획으로 바뀌어서 해석이 돼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7절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기나 한 것이냐?'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유(類)의 하나님의 시험을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날마다 날마다 설교를 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될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가 형통할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할 것입니다,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답을 주실 것입니다.'
모든 기도, 모든 설교에 십자가를 통해서 죄 사함 받은 이후의 삶에서 다 내게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 사함 받아 나를 의롭다 인 치신 그 삶 속에서는 마땅히 '내 사업은 이렇게 돼야 되고, 내 건강은 이렇게 돼야 되고, 내 자식은 이렇게 돼야 되고…' 다 내 마음속에 답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수험자 삼아서 문제를 출제하고 있는 정답을 가진 자들이에요.
인생의 출제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랑한다고 난리를 치면서 외아들이신 예수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희생시키셨다고요? 좋아요, 그렇게까지 나를 사랑한다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도록 허락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의 현실, 자 이제 어떡하실래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정답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이렇게 잘되게 해주세요, 내가 계획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이런 결과가 나게 해주세요!' 다 답을 갖고 있어요.
모든 설교가 답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제까지 여러분들에게 단 한번도, 세상 기준으로 여러분의 사업이 잘될 거다, 인생이 잘될 거다, 이런 설교를 해본 적이 없는 것은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만은 확실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이 데오빌로가 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어떤 방향으로 걸어가실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세상일이 이렇게 될 거다, 저렇게 될 거다 하는 모든 설교는 다 사기요 거짓말입니다.

여호와를 시험하는 자입니다, 설교자가 아니라 여호와를 시험하는 자들이에요.
주님을 믿고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게 될 것은 확실합니다.
거기까지 설교는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때문에 기뻐서 에덴을 형성하고 있는 사람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돼갈지는 아무것도 약속할 수가 없어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하나님 때문에 기쁜 에덴을 만든 뒤에 다 사자밥이 되어 죽고, 불에 타죽었습니다.
여기다 대고 무슨 말을 합니까?
사업이 잘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사업이 망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업은 하나님의 계획에 없는 것을 내가 시작한 것이니까.
도저히 교만해서 안 되겠으면 사도바울처럼 말뚝을 박아주실 수도 있어요.
예수님 믿은 다음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 복음서에서 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혹시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 자신에게 마음을 집중시키시려고 기적을 행해서 치료해주실 수는 있지만 예수님 믿은 다음에는 정 우리의 고질적인 죄적 체질들이 안 바뀌진다면 때때로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영원한 온전함을 위하여 병도 주실 수 있고, 실패도 주실 수 있고, 또 반대로 건강하게 이끄실 수도 있고, 사업도 잘되게 해주실 수도 있고… 그러나 어느 것이 답인지 누가 압니까?
왜 창조주이시고 외아들을 보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시험합니까?
왜 자꾸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답을 내고 있는 겁니까?
말이 됩니까? 내 인생의 답이 내게 있다는 것이?
왜 내 방식대로 하나님의 사랑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다가 그 방식대로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느냐 마느냐 하고 의심합니까?

출애굽 사건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사건은 어거스틴이 말한 대로 같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의 의미가 완성된 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에서 외아들을 주셨다는 하나님의 사랑은 붙박이 고정 기둥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건 불변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사업실패, 내 몸의 병, 내 자식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이 해석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신 광야에서 르비딤까지 가는 동안에 물을 안 주신 겁니다.
이유는 몰라요, 그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재 하신 그 하나님께서 왜 나를 사랑하시면서 사랑 때문에 물을 안 주신 건지 우린 알 수가 없어요.

왜 내 사업이 안 되는 건지 알 수는 없지만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 때문에 지금 일이 안 되는 것이고,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 때문에 내 가정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터치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게 주어진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정답이에요.
그 정답을 맞히려면 생기는 불만, 이해가 안 가는 점, 의아한 점,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를 바라보며 죽여야 합니다.
그래야 사랑 때문에 주어진 이 현실에 대해서 감사라는 정답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모든 현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이 하나님이 주시는 현실에 대해서 가장 올바른 정답은 무조건 감사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보여준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시고, 이 사랑을 기준으로 모든 삶을 해석해 나가세요.
사랑 때문에 실패한 것이고, 사랑 때문에 성공한 것이고, 사랑 때문에 슬픈 일이 생긴 것이다.
사랑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서 하나님의 사랑에 나의 정답과 나의 방식을 주입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맹독성의 독 사과를 입에 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